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06년 여름 | 14호

특집 여름나기 | 박물관 탐방 옛 이름도 정겨운 하슬라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소나기 속의 폭포 구경 | 전시실 산책 신라에 온 지중해의 물빛
유물사랑 빗살무늬토기 앞에서 | 답사기 월출산 아래 월남리와 월하리에서 | 기증유물 水晶 기념실 | 수강생 인터뷰 박물관과 함께 익어가는 사람들
특별기획전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夏 蟬

밤
매
목

올 여름에는 매미 소리만 들었다
한 편의 詩도 안 쓰고
종일 매미 소리만 듣는 것으로
마음이 흡족했다

지천명의
아침나절을
발을 씻고 大廳에 오르면
찬 물을 자아 올리는
매미소리

마음이 가난하면
詩는
세상에 넘치고
어느 것 하나 허술한 것이 없는
저 빛나는 잎새
빛나는 돌덩이,
누워서 편안한 大廳에서
씻은 발에
흐르는 구름

잠이나 자야지
낮에도
반쯤 밤으로
귀를 잠그고

이 무료한 安定은
너무나 충만하다

나무는 굽어질수록 우둔한 것을
잠이나 자자
地心에 깊이 뿌리를 묻고
종일
烏金의 날개를 부벼대는
매미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마음이 흡족했다.



마음으로 식히는 더위

날 새면 호미 들고 긴긴 해 설 새 없이
땀 흘려 흠이 젖고 숨 막혀 기진할 듯……

〈농가월령가〉 6월령의 구절이다. 내리쬐는 태양은 농부의 얼굴에서 섬 없이 떨어지는 땀조차 닦을 여력도 없이 지치게 한다. 뽕의 원래 뜻은 콩을 삶듯 뜨거운 햇빛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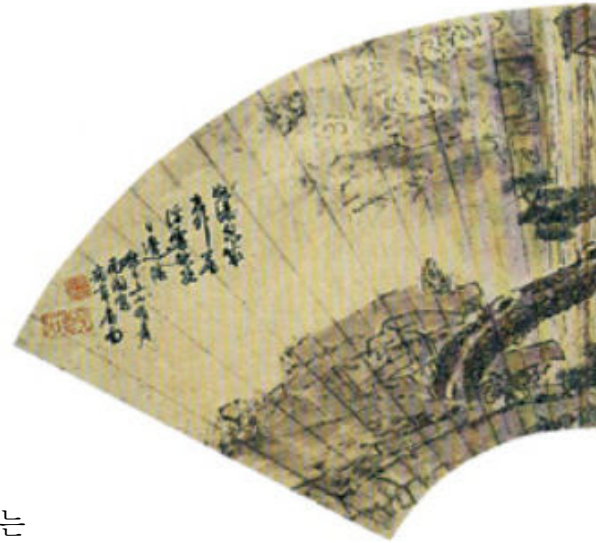
음력6월은 비가 많이 오는 소서, 대서의 절후로 더위가 한창인 때이다. 6월 세시풍속을 보면 15일은 流頭日이다. 유두 풍속은 고구려, 신라 때에도 있었으며, 『東國歲時記』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버린다(東流頭沐浴)는 기록이 있다. 동류에 가서 머리를 감는 것은 동쪽은 淸이요,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몸을 단정히 하고 나면 또한 조상에 대한 예도 잊지 않았다. 새로 익은 참외, 수박을 따고 국수와 떡을 마련하여 사당에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유두일 음식으로는 흰떡에 쌀가루를 섞워 삶아 꿀물에 넣고 얼음을 채워 먹는 水團과 장수하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유두면이 있다. 이날 여인들은 모처럼 일에서 해방되어 '물맞이'라는 놀이를 하며 보냈다. 동네 근처 한적한 곳에 흰 차일을 치고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 이들의 즐거운 행사에는 은밀한 구경꾼도 빠지지 않았는데, 유두일의 정경을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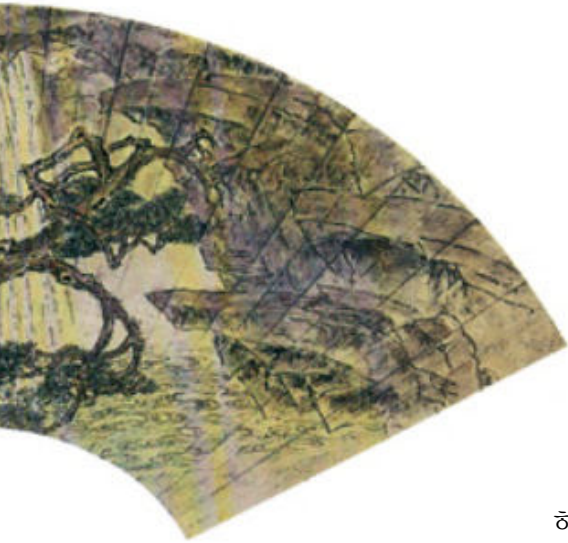
한 풍속화 속에 담겨 있다.

『동국세시기』에 ‘천연정에서는 연꽃을, 삼청동과 탕춘대와 정릉에서는 水石을 보러 산보객이 많이 모인다. 서울 풍속에, 남산과 북한산 계곡에서 탁족 놀이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름철에 淸澗玉水를 찾아다니며 씻고 노는 모임을 濯足會라고 하였다. 일년 중 가장 더위가 심한 때인 삼복중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복다림’을 했다. 삼계탕, 개장, 민어매운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기』에 ‘진덕공 2년에 비로소 삼복 제사를 지내는데 성안 사대문에서 개를 잡아 蟲災를 막았다’는 중국의 기록으로 보아 개장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먹거리를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서 하루를 보냈다.



요즘은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지만 우리 선인들은 어떻게 더위를 피했을까. 가장 흔하게 사용하던 필수품으로 부채를 꼽을 수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工曹에서 端午扇을 만들어 진상하면 단오날 임금의 그것을 여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겨울철 강에서 얼음을 썰어서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여름에 관리들에게 빙표를 주어 藏氷庫에서 그것을 받아 가도록 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얼음은 구경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다른 피서 도구로는 대자리, 발, 등토시 등이 있다. 등걸은 등나무의 가는 가지로 성글게 만들어 모시옷이나 삼베옷 속에 조끼처럼 입었다. 주로 남자들의 한여름 기호품이었던 토시는 소매와 비슷하게 만들어 팔목에 끼었다. 뻣뻣하게 풀을 먹인 모시옷에 등걸을 입고 부채질을 하면, 부채 속 폭포에서 어느새 물새 한 마리 날아와 시원하게 날개짓을 해 주지 않았을까? 밤에는 잘 마른 대나무로 엮어 만든 죽부인을 가슴에 품고 잠을 청했다. 대나무의 서늘한 촉감과 솔솔 스며드는 바람에 저절로 눈이 감겼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죽부인을 쓰지 않았는데, 더위 속에서도 체통을 잃지 않으려 애쓴 모습이 재미있다. 일반서민들의 가장 흔한 피서법은 등목이다. 불별더위로 한껏 달아오른 몸에 퍼붓는 한 바가지의 물, 얼마나 시원하고 또한 짜릿했을까?



물가 가득 왁자한 함성이 퍼졌을 것이다. 차가운
우물 속에 담가두었던 과일로 몸속까지 달래고
나면, 고단한 하루가 씻은 듯 사라지고 어느새
밀려오는 잠속으로 빠졌으리라.

폭폭 찌는 날 가족들을 위해 뿔뿔한 모시옷,
삼베옷을 손질하느라 바빴을 우리네 여인들.
등줄기를 타고 실 새 없이 땀이 흘러도 등목
조차 할 수 없으니……. 그들의 피서는 한밤
중 개울가에서 하는 목욕이다. 달빛 반짝이는 물
속에서 풀어내는 여인들끼리의 수다,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활력소였을 것이다.

옛 그림 속에 나타난 우리 선인들의 여름나기 모습은 어떨까? 濯足圖, 觀瀑圖, 獨釣圖 등에서 볼 수 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며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탁족도이다. 탈속하여 은둔한 선비의 마음을 표현한다. 문인들의 시문에 인용되고 있는 ‘濯足萬里流’는 속세에서 초연함을 상징하며 청정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회화의 소재로 ‘濯足之遊’가 자주 등장한다. 바위에 걸터앉아 냇물에 발을 담그고 시리도록 찬 물을 느끼는 이런 탁족의 자세는 이경운의 그림에 많이 보인다. 강세황의 화첩 중 일부인 <태종대>에도 한 여름 탁족하는 士人들의 운치 있는 기행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굵직한 선으로 그려진 각진 바위와 흐르는 듯한 물줄기는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트이고 시원스럽다. 단원이 그린 <풍속도> 속에는 발만 담그기에 부족했는지 훌훌 벗어던지고 유명한다. 표정이 익살스럽다. 얼굴만 빼꼽이 내놓은 모습도 보인다. 그 아래 인물은 이제 막 거꾸로 잠수하려는지 구부린 다리와 엉덩이 꼭선이 마치 물오리 같다. 예나 지금이나 물 속에서는 누구나 다 아이 마냥 즐거운 것을.

<관폭도>는 심산유곡 벼랑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완상하는 초탈한 선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까지 시원하리라.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폭포의 기세와 물소리에 눌러 나를 잊는다. 소나무, 대나무 등을 배경으로



조용히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연과 조화되려는 문인들의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 무덤고 지루한 여름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강가에서 홀로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인물을 묘사한 것이 <독조도>이다. 그 인물은 어부라기 보다 낚시질로 자적하는 선비일 것이다. 『史記』에 ‘낚시질이나 하며 유유자적하던 姜太公이 周 文王을 만나 그의 스승이 되고, 武王이 대국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은둔생활을 하며 낚시질로 소요하는 독조도의 인물은 강태공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다. <柳下獨釣圖>의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 무심히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가로운 마음은 힘든 세상살이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다산 선생이 1824년 여름에 쓴 ‘消暑八事’ 라는 시에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솔밭에서 활쏘기, 느티나무 아래서 그네타기, 넓은 정자에서 투호하기, 대자리 깔고 바둑 두기, 연못의 연꽃 구경하기, 숲 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달밤에 탁족하기, 비 오는 날 한시 짓기’다. 운치 있을 뿐 아니라 자못 낭만적이다. 마음의 여유로 더위를 잊고자 한 선비의 멋이 느껴진다. 이번 여름 옛사람들의 피서법으로 더위를 잊어봄은 어떨지. **17**점



빛 끝에서 부는 바람

이글거리는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일 때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그 뜨거움을 피할 곳을 찾는다.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어디로든 떠나고 싶다. 햇빛 한 점 없는 울창한 숲 속을 헤매도 좋고, 차가운 계곡물에 발 담그고 누워 하늘을 보아도 좋다. 이 더위를 피하고 세상사를 털어 버릴 수만 있다면 아무 곳이면 어찌리.

無念無想에 잠긴 노인의 편안한 모습은 바위와 한 몸인 듯한 착각에 빠진다. 앞머리가 벗겨진 시원한 이마와 둥글납작한 코, 살짝 감은 눈에서는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강희안의 <高士觀水圖>는 물가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 선비를 그렸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끼나 정작 그림 속의 배경은 고요하지 않다. 뒤편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고 넝쿨은 나무를 타고 힘차게 뻗어 내려왔으며 바위마저 울퉁불퉁 제멋대로이다. 나무, 물 등 모든 게 거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겨져 나오는 이 고요함은 무엇일까. 아마도 얼굴을 묻고 있는 넓은 소맷자락 속에 세상의 모든 시름을 감싸 안고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이리라. 우리 선인들의 여름나기는 이렇듯 현실을 떠난, 정신적인 여유에서 낭만을 느낀다.

찰랑대는 물가에 앉아 꽃내음에 취해 발을 담가 본다. 이경운의 <高士濯足圖>의 선비는 많이 풀어진 모습이다. 옷자락도 풀어 헤쳐 불룩한 배가





드러나고 바지도 무릎 위로 걷어 올렸다. 아직 물이 차가운지 발을 얼른 빼서 꼬고 있다. 생각지 못한 차가움에 마냥 좋던 기분이 가라앉으며 얼굴이 약간 굳어진다. 무더운 사랑방에서 옷고름 똑똑 여미고 단정히 앉아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선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짙어져만 가는 綠陰 속에서 코끝을 스치는 산들바람이 한껏 게으름을 피우게 하나보다. 옆에 그런 주인을 바라보는 시동의 모습이 유난히 작게 그려져 있다. 평상시와 다른 주인의 모습에 낯설기도 하고 웃음이 나올 것 같아 오히려 무표정으로 붓짐을 맨 채 술을 권하고 있다. 발을 씻는 놀이는 더운 날 시원한 계곡에 앉아 避暑를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고전 『楚辭』의 어부 편을 보면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이 올바르면 벼슬을 하고, 혼탁하면 은둔하며 세월을 보낸다는 뜻이다. 이 선비도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을 벗 삼

아 때를 기다리는 것일까. 그보다는 더위에 지친 한 사대부의 여름나기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조용히 물을 바라보고, 잔잔한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며 답소를 나눈다. 깊은 산 속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찾아 여기저기 산을 오른다. 선인들에게 물은 단지 여름의 무더위를 피하고 잠시 일상의 휴식을 취하는 자연의 일부분이 아니다. 노자는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강하고 굳센 것을 이기는데 물이 제일이다(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 莫之能勝)’고 했다. 물은 낮고 평탄한 곳에서는 초여름 새벽의 이슬 한 방울에도 잔물결을 일으킨다. 바위에 부딪치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강력한 태풍이 오듯 솟구쳐 오르며 광폭해진다. 선인들은 흐르는 물에 자기



자신을 담고,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서 호연지기를 길렀다.

정선의 <박연폭>에서는 장쾌한 물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물줄기가 세찬지 폭포 위아래의 바위는 견디지 못하고 마모되어 둥글기만 해, 옆의 기암괴석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폭포의 크기는 못에 서있는 선비와 정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거센 물줄기에 고모담의 수면은 거친 풍량이 일고 선비들의 옷은 흠뻑 젖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평온하다. 오히려 절벽의 소나무들이 힘찬 물줄기에 놀라 폭포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다.

겸재의 <만폭동>에서 다시 <박연폭>에서의 선비들이 등장한다. 시동을 거느리고 폭포를 보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 물을 찾아 유람하면서 세월을 기다리는지, 힘찬 물줄기에 세상 시름을 흘려보내고 싶은지. 여기서의 폭포는 높지 않지만 그 물줄기가 굽이굽이 힘차다. 산도 소나무도 물도 모두 역동적이고 금강산의 절경이 한 눈에 보이며 정기가 화면 가득 뿜어져 나온다. 그 정기를 받아 선비와 시동도 생동감 있어 보인다. 이 자연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만 있다면 어찌 세상의 근심사가 걱정이요,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자연 속에 파묻히면 그곳이 바로 극락 아닌가.

빗과 함께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바위에 기대어 그 차가운 감촉을 얼굴로 느껴본다. 박제의 <倚岩觀水圖>는 빗과 정답게 한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념에 빠져있다. 따라온 시동마저 지루한지 웅크리고 탄척을 부리고 있다. 조용히 물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비의 모습이 여유롭다. 세 사람이 앉





아도 넉넉한 바위와 나무마저도 여름날의 한가로움을 보여주나, 뒤로 보이는 산은 무척 깊다. 관폭도가 아래에서 위로 물을 올려 보아 그 웅장함과 깊이를 느낀다면, 관수도는 깊은 못의 조용한 파장을 담담히 주시한다.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른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다. 세상사의 단순함.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지친 마음을 물에 떠내려 보내고 바람에 날려 보내는 선비들의 지혜를 볼 수 있다.

김수철의 〈松溪閑談圖〉에서는 인간 세상이 아닌 신선들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소나무 아래서 있거나 앉아 있는 선비들의 모습에서 인간사의 피곤함은 보이지 않는다. 물과 돌과 나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시원한 솔내음을 맡으며 담소를 나누는 선비들은 시간의 흐름을 개의치 않는다. 인생이란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 윤희의 고리 속에 잠깐 스치는 인연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연연해하는 인간들을 안타까워한다. 마음을 같이 하는 벗들이 함께 모여 풍류를 즐기는 풍속은 조선시대 문인과 선비들 사이에서 흔히 있던 일이다. 세속의 일을 잊어버리고 한담으로 소일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젓대 소리 늦바람에 들리지 않고 갈매기는 꽃물결 속으로 떨어지네. [一笛晚風聽不得 白鷗飛下浪花前]’ 여인네들의 고운 자태와 손짓 하나에 선비들의 마음이 설렌다. 신윤복의 〈舟遊淸江〉은 뱃놀이하는 선비들과 기녀들을 그리고 있다. 절벽도 옆으로 누워 신록이 부드럽게 감싸며 돌고 배는 천천히 떠나간다. 뱃머리에 앉은 여인의 생황소리와 樂工의 대금가락이 산들바람과 함께 젓대 소리를 감추어 버린다. 일렁이는 잔물결은 뱃전을 두드린다. 스치는 물살에 손을 담가보는



여인을 낮이 나간 듯 턱을 고이고 쳐다본다. 푸른 치마폭을 숨씨 좋게 휘어 감고 장죽을 입에 갖다 댄 여인의 모습에 교태가 넘쳐흐르니, 어깨를 살포시 감싸며 장죽을 물려주는 사나이의 눈길이 뜨겁기만 하다. 옆에서의 사랑 놀음도 아랑곳없이 멀리 시선을 두고 詩想에 잠긴 선비의 정신은 허공을 헤매는 듯 표정이 없다. 강가에 배 띄우고 아리따운 여인네와 친한 벗들과 함께라면 이 더운 여름도 어느새 지나가리라.

이슬 머금은 여름날의 새벽은 두런두런 이야기가 많다. 수풀 사이 살짝 걸린 산안개와 부채살처럼 햇살이 스며들어 더위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다. 풀잎과 바람과 속삭이며 잠시 세상사를 비껴 갈 수 있다면 한 낮의 태양도 그다지 싫지 않으리. **77리**





옛 이름도 정겨운 하슬라

- 강릉 오죽헌 · 시립박물관을 다녀와서 -

온 대지와 하늘이 푸르름으로 빛나는 계절 5월. 바다내음과 정갈함으로 다가오는 옛 이름도 멋스러운 하슬라, 강릉을 향해 출발했다. 고속도로를 줄지어 달려가는 수학여행 버스 안 학생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재촉해 본다. 수많은 방문객의 소음 속에서도 단아한 모습으로 품위를 잃지 않고 맞아주는 유서 깊은 오죽헌과 전통 건축 양식을 하고 있는 박물관이 함께 자리한다. 여느 박물관과 달리 이곳은 1998년부터 두 곳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오죽헌[보물 제165호]은 睡齋 崔應賢의 옛집으로 별당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 건축의 하나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일자형 집이다. 주거건축에서는 드물게 二翼工式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을 후대에 물려받은 權處均은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호가 집이름으로 바뀌어 오늘까지 이어진다. 주택의 구조적인 가치 외에 夢龍室에서 栗谷 李珥가 태어남으로 인해 더욱 뜻 깊은 장소가 되었다. 경내에는 文成祠, 御製閣, 사랑채, 율곡기념관이 있다. 문성사는 1975년에 세운 율곡을 모시는 사당으로 '문성'은 인조가 내린 시호이다. 온유한 모

습의 영정 앞에 서니, 이곳을 찾은 학생들이 잠시라도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어제각은 유년기에 사용했던 벼루와 『擊蒙要訣』을 보관하기 위한 유품 소장각으로 정조명으로 건립되었다. 기념관에서 율곡 일가의 뛰어난 예술성과 학문 그리고 생활사를 감상해 본다. 사임당의 작품으로는 세심한 관찰과 묘사가 뛰어난 <초충도>와 <습작 매화도> <초서> 등이 있다. 율곡의 『격몽요결』은 유학의 입문서로써 그의 친필원본이며 그밖에 『율곡전서』 <간찰> 등이 전시되고 있다.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묵매양식을 잘 보여주는 율곡의 누이 梅窓의 <매화도> 앞에서 그림에 매료된 듯 발길이 멈춘다. 막내 동생 玉山 李瑀의 <귀거래사>는 초서의 정수를 보여주며, 한 떨기 국화로 표현된 <국화도>는 한없이 오롯하다. <이씨 분재기>는 사임당의 어머니가 다섯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기록문이다. 상속내용이 자세하게 적힌 이두 문서로 당시 재산상속의 실태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이다.

시립 박물관은 역사문화관과 향토민속관 두 곳으로 나뉜다. 역사문화관은 선사시대 유물과 그림, 도자기, 책, 불교관련 유물 등이 지역 역사 문화를 보여준다. 안인리 유적지는 원삼국시대



유물이 상당수 발견된 곳이다. 한송사석조보살좌상[국보124호]은 10세기 고려시대 것이다. 일반 불상과는 달리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유빛 피부의 느낌이 한층 부드럽고 온유하다. 원통형 보관을 쓰고 뚜렷한 입가의 미소를 짓고 있는 보살상을 바라보니 인자한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다. 옆 자리의 한송사지석불좌상[보물 81호] 역시 한 쌍인 듯 흰 대리석으로 되어있다. 몸을 감싸고도는 옷자락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참으로 고와 보인다. 머리 부분과 오른 팔이 소실되어 분명 우리를 향해 짓고 있을 자애로운 미소를 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 강릉지역은 계모임이 생활에서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한다. <미타계첩>은 불자들의 계모임을 소개한 것으로 미타계는 오늘날의 계 형태를 갖춘 모임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난설헌집』은 허난설현이 지은 시, 산문 등을 그녀 사후 동생 허균이 발간한 것이다. 문학성과 더불어 오누이의 도타운 정이 듬뿍 담겨 있는 듯하다. 명안공주에게 보낸 <현종 어필간찰>을 읽고 있노라면 애뜻한 父情에 코끝이 찡해온다. 아마나의 아버지 마음도 이리했으리라.


향토민속관 입구에는 1910년대와 지금의 강릉시 전경을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있다. 칠사당과 강릉객사였던 임영관을 찾아보는 재미와 세월 속 사라져간 옛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다. 전시실은 각종 생활용품과 생업도구, 기증유물인 각종 복식과 장신구 등이 있으며 옛 생활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강릉단오제



전경이 디오라마로 전시되어 단오제의 진행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고인돌 하부 구조와 신라 고분이 복원되어 있다. 장독대와 진포배기[숫대]를 보니 고향집을 찾은 듯 편안하다. 새로운 오천원권 지폐에 사임당의 초충도 중 수박과 맨드라미가 들어갔으며, 야외전시장 한 편에 초충도의 식물들이 8개 원형 화단에 키워지고 있다.

강릉지역 사랑이 남다른 이 지역 토박이이기도 한 鄭亢教관장은 “이제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생, 교사, 지역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공립박물관을 지향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다.

돌아오는 길 鏡浦臺에 올랐다. 검푸른 바다와 잔잔한 경포호를 함께 느낄 수 있어 잠시라도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때마침 한줄기 바람까지 불어와 일행의 피곤함을 실어가 주었다. 

소나기 속의 폭포 구경

-세검정의 절승(遊洗劍亭記)

정 약 용

세검정의 구경거리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하는 폭포 구경,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비가 한창 내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비에 젖어가며 말에 안장을 얹고 교외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가 개이면 산골 물도 또한 기세가 시들며 줄어든다. 그래서 세검정이 가까운 교외에 있음에도, 성중에 사는 사대부들 중 세검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사람은 드물다.

신해년(1791) 여름에 나는 韓溪甫(致應) 등 몇몇 사람들과 명례방에서 자그마한 모임을 가졌다. 술이 이미 돌고 있었는데, 흑독한 더위가

찌는 듯하더니 먹구름이 갑자기 사방에서 일어나며 마른 우레가 은은히 들려왔다. 내가 술병을 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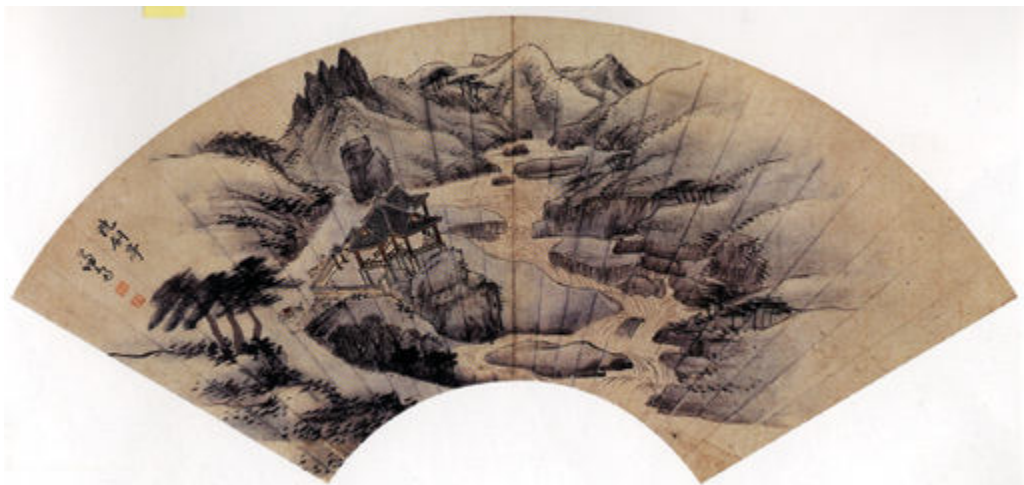
“이것은 폭우가 쏟아질 징조일세. 자네들 세검정에 가보지 않으려나? 가지 않겠다는 사람에겐 벌주로 술 열 병을 한꺼번에 주지”

하니 모두들

“좋지, 이를 말인가.”

하였다.

그리하여 마부를 재촉하여 출발하였다. 창의문을 나서자 벌써 손바닥만한 빗방울이 두세



游洗劍亭記

방울 떨어진다. 말을 빨리 달려 세검정 아래 이르니, 수문 좌우의 산골짜기 사이는 이미 암코래 솟코래가 물을 뿜는 듯했고, 옷소매 역시 빗방울로 얼룩덜룩했다. 정자에 올라 자리를 펴고 앉으니, 난간 앞의 나무들은 이미 미친 듯 나부끼고 뿌려대는 빗방울로 한기가 뼈에까지 스며 들었다. 그러더니 비바람이 크게 일며 산의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순식간에 계곡을 메우고 골짜기를 울리며 물결이 일어 부딪치며 쿵쾅거리고, 모래를 일고 바위를 굴리며 와르르 달려 달아난다. 물이 정자의 주춧돌을 할퀴는데, 그 형세가 웅장하고 소리는 맹렬하여 서까래와 난간이 흔들린다. 두려워라! 안정할 수가 없었다. 내가

“어떤가.” 하니, 모두들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니 농지거리가 질탕하게 일어났다.

잠시 있으니 비가 그치고 구름도 걷혀 산골 물도 점점 잔잔해졌다. 저녁 해가 나무 사이에 걸려, 울긋불긋 온갖 광경을 연출하였다. 서로 베고 누워서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농담도 하였다. 잠시 후 沈華五(奎魯)가 이 소식을 듣고는 정자로 뒤쫓아 왔다. 그러나 물은 이미 잔잔해진 뒤였다. 처음엔, 화오도 불렀으나 오지 않았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욕도 했다. 그와 함께 술 한순배를 더 마시고 돌아왔다. 그때 洪約汝, 李輝祖, 尹无咎도 함께 었다. ㉞

游洗劍亭記

洗劍亭之勝. 唯急雨觀瀑布是已. 然方雨也. 人莫肯沾濕韃馬而出郊關之外. 既霽也. 山水亦已衰少. 是故亭在莽蒼之間. 而城中士大夫之能盡亭之勝者鮮矣. 辛亥之夏. 余與韓僊甫諸人. 小集于明禮坊. 酒既行. 酷熱蒸鬱. 墨雲突然四起. 空雷隱隱作聲. 余蹶然擊壺而起曰. 此暴雨之象也. 諸君豈欲往洗劍亭乎. 有不肯者罰酒十壺. 以供具一番也. 僉曰可勝言哉. 遂趣騎從以出. 出彰義門. 雨數三點已落. 落如拳大. 疾馳到亭下. 水門左右山谷之間. 已如鯨鯢噴矣. 而衣袖亦斑斑然. 登亭列席而坐. 檻前樹木. 已拂拂如顛狂. 而洒浙徹骨. 於是風雨大作. 山水暴至. 呼吸之頃. 填谿咽谷. 澎湃砰訇. 淘沙轉石. 渤潏奔放. 水掠亭礎. 勢雄聲猛. 檣檻震動. 凜乎其不能安也. 余曰何如. 僉曰可勝言哉. 命酒進饌. 諧謔迭作. 少焉雨歇雲收. 山水漸平. 夕陽在樹. 紫綠萬狀. 相與枕藉吟弄而臥. 有頃沈華五得聞此事. 追至亭. 水已平矣. 始華五邀而不至. 諸人共嘲罵之. 與之飲一巡而還. 時洪約汝, 李輝祖, 尹无咎亦偕焉.

신라에 온 지중해의 물빛

하영남 | 회원

새로운 것은 늘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반복되는 일과를 건디는 힘도 未知에 대한 憧憬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이 주는 묘미도 이에 버금가지 않으리라. 콜라처럼 톡 쏘는 낯선 곳의 바람은 확실히 답답한 일상을 관통하는 마력이 있다. 한없이 편안하다고 느꼈던 주변이 갑자기 남루해 보일 때 '뭐 좀 색다른 것 없을까?' 하고 비명처럼 내뱉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지도를 꺼내놓고, 멀리 바다를 건너고, 섬 없는 대륙 횡단 열차에 몸을 싣는 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인다. 그렇지만 여행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아무리 야멸치게 계획을 세워도 실행은 늘 미지수이다. 거창하지 않고 간단하고도 소박한 시간 여행, 박물관 산책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시공을 초월하는 멋진 탐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물관은 몇 만 년의 지층을 가진 깊고도 넓은 하나의 세상이다. 모두가 탐내는 보물로 가득찬 집, 얼마나 황홀한 잠행인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관 신라실의 鳳首形 유리병[국보 193호] 앞에서 발이 굳었다. 회오리바람이 일듯 아찔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어린 시절 혼몽한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처럼 말이다. 여름 방학 중의 비오는 어느 저녁 무렵, 책가방을 주섬주섬 챙겨 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선 기억이 있다. 여기가 어디인지, 어느 때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대형 무덤에서 나온 유리그릇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재질도 형태도 현대적이다. 또다시 미로에 들어선 착각이 든다. 그때처럼 킁킁한 조명도 한뫼를 했으리라. 몇 개의 대륙을 훌쩍 뛰어넘어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으로 간다. 지난 여름 내 영혼을 사로잡았던 그 눈부신 바닷가 앞인 듯하다.

琉璃, 매끄럽고 고운 이름이다. 이름 뿐 아니라 빛깔도 한없이 유려하다. 봉수형 유리병을 바라보는 내 눈 속으로 찰랑찰랑 물결이 밀려온다.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뻗으면 바스라질 듯 여리다. 보는 것만으로 아슬아슬한 유리병, 저 선명한 틈까지 어찌 보듬으라는 것인지. 눈이 황망해진다. 손잡이를 휘감고 있는 저 금줄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행여 손잡이가 깨어져 수리라도 한 것일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금줄로 동여맬 생각을 했겠는가.

이 유리병이 왜 황남대총에 묻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 신라에 도착했는지도 모른다.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하여 발굴 후 겨우 이름을 얻었을 뿐, 무덤의 형태를 분석하고



다른 부장품을 통해서 수없는 유추를 거쳤지만 여전히 추측만 난무한다. 그러나 이 유리병이 거기 있음으로서 시사하는 의미는 어머어마하다. 백 마디 말을 실체 하나가 당당히 증명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도 지금처럼 유행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지난 학기 문화인류학 시간에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다. 설마하는 심정으로 대답없이 다들 눈치만 살핀다.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도 유행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쉬운 문제인데요. 신라시대 콘스탄티노플과 경주 간의 유행 시차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강의실이 술렁인다. 차도 비행기도 사진도 TV도 없는 시대였으니 그 먼 거리를 아무리 부지런히 뛰다 해도…….

“6개월이면 페르시아산 최신 양탄자가 경주 귀족의 집안에 깔렸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늘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존재들이지요. 문화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이동입니다.”

낙타는 십리 밖에서도
 물냄새를 맡는다
 맑은 영혼은 기어서라도 길 끝에 이르고
 그 길 끝에서
 다시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
 지도의 한 부분으로 사라진다
 - 허만하 <낙타는 십리 밖에서도>


봉수형 유리병 하나가 고대 신라인의 교역과 문화 활동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인 신라에 당도하기까지 이 민감한 병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여정을 거쳤을 것이다. 자갈하게 빛을 투과하는 지중해의 바닷물처럼 연녹색이다.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병은 솔직하다. 아직 아무것도 숨길 줄 모르는 첫 사랑에 빠진 처녀의 심장 같다. 동그스름한 타원형 몸체에 목을 길게



빼고 그 위에 나팔꽃 한 송이를 얹은 듯하다. 한쪽으로 푸른 손잡이를 달았는데 盛裝한 처녀가 우아한 자세를 뽐내느라 허리에 팔을 올린 포즈이다. 목에 두른 몇 줄의 선과 口緣部의 굵은 선은 손잡이와 같은 깊은 바다색이다.

지금 보아도 단아한 품세의 유리병, 당시 귀족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 서역 상인들에게 주문이 쇄도 했을 것이다. 신라의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 등에서도 여러 개의 유리잔이 발굴되고 있다. 다양한 옥제품과 서역의 풍부한 향료, 카펫 등이 인기를 끌었다. 9세기 신라 흥덕왕에 이르면 수입 사치품을 금하는 법령을 공포하기에 이른다니 예나 지금이나 유행은 열병처럼 무서운 것인가 보다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에서 유리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다. 젤 상태의 투명한 덩어리가 긴 대롱 끝에 붙어있다. 한 사내가 숨을 불어 넣자 액체가 부풀어 오른다. 비누방울 놀이를 하듯 단순하다. 둥근 유리 모형을 쇠막대기에 얹어 잡고 다듬기 시작한다. 핀셋으로 얇은 유리막을 잡아당겨 손잡이를 만들고 구연을 물결무늬로 구부리고 능숙한 솜씨로 유리를 자른다. 마술이 따로 없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홀린 것처럼 혼이 쏙 빠진다. 사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땀으로 범벅이다. 뚫어지게 지켜보는 내 눈도 불에 덴 듯 뜨겁다. 이렇듯 모든 탄생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루어지나보다.

나의 전시실 산책은 좀 느린 걸음이다. 이들이 어둠속에서 보낸 숱한 세월을 생각하면 결코 후다닥 지나칠 수가 없다. 빛을 보기 위해 건넌을 여러 경로를 눈빛으로 쓰다듬는다. 모든 존재는 빛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발산한다. 유리병 하나로 시작된 긴 여정, 신라인의 심연을 기웃거리다 어느새 베네치아 바닷가까지 이른다. 역시 바람은 짜릿하다. 

경주 황남대총 南墳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은 그리스·로마시대 대롱불기 기법으로 만들어진 로만 글라스이다. 주로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제작 되었는데 그리스식 이름은 오이노코에 (Oinocoe)이다. 포도주를 따르는 주전자라는 뜻이며 금속제품도 같은 모양이 있으나 유리병으로는 동양에서 발견된 유일한 예이다. 북쪽의 코카사스 산맥을 넘어 유목민 거주지역과 키르키즈 지방에서도 유사한 제품이 출토되어,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황남대총은 북분과 남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분의 피장자는 5세기 중엽의 남성이다. 유리병의 크기는 높이 25cm, 지름 9.5cm이다.

빗살무늬토기 앞에서

1.

토기란 흙으로 빚어 구운 모든 것을 말한다. 그 토기의 겉면에 반짝이는 약을 바르고 한 번 더 구우면 도자기가 된다. 푸른색 유약을 바르면 청자가 되고 투명한 유약을 바르면 백자가 됨은 물론이다. 그릇의 종류뿐만 아니라 배, 집, 동물 등을 비롯하여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도 흙으로 빚어 불에 구우면 토기가 된다. 그러나 날카로운 칼이나 복잡하고 정교한 부품들로 이루어진 첨단기기를 흙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서 쇠를 달구고 날을 내기도 하였으며, 보다 강하고 섬세한 가공을 할 수 있는 비철금속을 발명하기에 이른다. 몸을 치장하고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은이나 옥, 금을 찾아내고 그것을 세공하는 기술도 알게 되었다.

2.

주위에 있는 흙과 작은 돌 부스러기, 조가비 가루 등을 섞어 모양을 만들고, 노천에서 그냥 불을 피워서 구운 것이 빗살무늬토기이다. 만들기도 어렵고 쉽게 깨어지지만 선사인들은 거기에 예쁜 그림도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도 넣었다. 그만큼 여유가 있고 풍요로웠다. 산에서는 토끼와 사슴을 사냥하고, 들에서는 열매를 따다. 강이나 바닷가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를 잡았다. 모두가 그들의 식량이었다. 아무도 더 먹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다투지도 않았다. 잘 버린 화살로 맹수를 쫓을 수 있었다. 인류들의 파라다이스였다. 바로 신석기시대였다.

그러나 집들이 들어서고 마을이 생기면서 인구도 엄청 늘어났다. 많은 사람이 충분히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했고, 땀 흘려 농사도 지어야



했다. 시간이 부족하여 만든 토기에 아름다운 무늬를 넣을 시간도 없어졌다. 무문토기이다. 잘 익은 벼와 가축을 지키기 위하여 울타리와 담이 생기고 가족과 집단끼리의 다툼이 일어났다. 참혹한 전쟁이 잦았다. 이기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뽑아야 했고, 적에게 더 치명적인 부상을 낼 무기도 필요했다. 지도자의 권위와 위엄을 표시하는 청동기와 큰 무덤(고인돌)도 만들어야 했다. 청동기시대였다.

더 큰 마을이 들어서 드디어 도시가 생겼다. 쇠라는 기막힌 신소재로 칼과 창이 만들어졌다. 백성들은 그것들로 억박지르는 관리들 앞에서 무서워하였다. 철의 시대였다.

3.

구석기시대에 인간의 것으로 변한 불은 화재와 같은 재앙을 인간에게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운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는 밥그릇, 국그릇, 찻잔 등 여러 가지 용도의 그릇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구석기시대에는 그릇이 없었다. 물론 식물의 줄기를 엮어 만든 바구니는 있었지만 이것으로 액체를 담거나 음식을 끓여 먹을 수는 없었다. 토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물과 같은 액체를 담거나 음식을 끓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토기의 발명으로 인간은 음식을 끓이거나 찌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토기는 인간이 해변으로 진출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해변에 널려 있는 무한한 식량인 조개를 조리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 것이 토기이기 때문이다.

토기는 인간이 경험한 최초의 화학변화라고 말하여 오듯이, 흙에 불을 가하여 화학적인 변질을 일으키게 하여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원리로 만들어진다. 물론 이 방법을 인간이 누구로부터 배운 것은 아니다. 무수한 시행착오와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 습득한 지식이다.

토기의 발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가장 흥미를 끄는 가설은 ‘화로추락설’이다. 즉, 흙 문은 바구니가 주인의 실수로 화로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바구니는 불에 타 없어졌지만 바구니에 문은 흙은 딱딱한 토기로 변하였다. 바구니를 잃어버린 주인은 한참 뒤에 화로 속에서 바구니보다 튼튼하고 액체까지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물체 즉 ‘토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토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액체를 오랫동안 담아 두면 밖으로 스며 나오며 약간의 충격에도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활 주변에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리고 원하는 형태대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장소로 이동되어 교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토기의 모양과 토기에 나타나는 무늬들은 토기를 만드는 집단의 창작 의식이나 전통을 반영하며, 그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선사토기 이후에도 인류는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가마’라는 것을 발명하여 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발전시킨다. 우리가 자랑하는 상감청자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찰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4.

빗살무늬토기를 공부한 지도 10년이 더 되었다. 그릇의 모양과 무늬의 형태, 그것들이 가지는 지역과 시기차에 집착하였다. 형태도 알 수 없는 작은 조각들을 붙잡고 수도 없이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흙을 파와 토기를 만들고 무늬를 넣었다. 나뭇가지를 꺾어다 불을 피우고 굽기도 하였다. 출근하여 흙과 불장난을 하는 데도 월급을 주니 우리 회사는 참 좋은 곳이라고 자랑도 하였다.

오늘 다시 토기 굽기와 조리 실험을 한 차례 더 하였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 흙의 채취에서 시작하여 반죽, 성형, 시문, 소성, 조리에 이르기까지 흙탕과 따가운 불길, 솥으로 범벅이 되도록 고생한 근, 리, 경, 현, 호, 연 등의 모습을 떠올리며 단상하였다. 도자기와 금속공예품 앞에 모인 관람객들은 예술을 논하고 명품을 감상하지만, 빗살무늬토기 앞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무엇이나 풍족하고 다툼이 없던 웰빙시대를 꿈꾸는 것이라고 믿어본다. 이제는 빗살무늬토기 앞에도 누군가가 한참이나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06년 5월, 雲門) 

월출산 아래 월남리와 월하리에서

이 수 희 | 회원

월출산은 놀랍다. 드넓은 나주평야는 마치 퍼즐조각을 이어 붙인 듯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산세이다. 그 속에 나른하게 잤아들던 사람들이 영암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다가드는 감청색 바위산에 놀라 눈을 뜬다. 사방 백리에 큰 산이라고는 없는 들판에 마치 도봉산을 떼어다 놓은 듯한 장대한 돌산이 서 있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월출산에는 움직이는 바위 세 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바위들의 기운으로 산 아래 고을에 큰 인물이 난다고 하여 중국 사람들이 몰래 와서 바위들을 밀어 떨어뜨렸는데, 그 중 한 바위가 도로 기어 올라갔다. 신령스러운 바위가 있는 곳이라 하여 산 아래 고을을 영암이라고 했다. 아예 월출산 전체가 한 덩어리의 신령스러운 바위로 보이기도 한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땅으로 유배 가던 길에 영암과 강진을 갈라 놓는 풀티재를 지나며 쓴 시가 있다.

누리령 산봉우리는 바위가 우뚝우뚝
나그네 뿌린 눈물로 언제나 젖어 있네
월남리로 고개 돌려 월출산을 보지 말게
봉우리 봉우리마다 어찌면 그리도 도봉산 같아

나는 지금 월출산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절터를 잡은 월남사지로 가고 있다. 오후의 햇살은 느긋해지고 멀리 월출산 봉우리가 아스라이 보인다. 고아한 삼층의 돌탑, 사람들이 살다 떠나간 자리에 무너진 돌담, 풀밭, 유채꽃, 초파일에 달았던 연등, 석탑을 감싸주는 반들거리는 새잎의 감나무, 모든 풍경이 폐사지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의 해설을 멀리 떠도는 전설의 한 자락처럼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무너진 돌담 너머로 풀밭 사이를 서성였다. 아릿하다. 언제 또 여기 와 볼 것인가. 또 온다 한들 그땐 얼마나 무섭게 변해 있을 것인가.

탑 가까이 간다. 단층 기단과 1층 및 2층의 몸돌, 각 층의 지붕돌 등 탑 전체가 여러 개의 작은 석재로 이루어졌다. 기단 폭이 1층 지붕돌 보다 좁고 몸돌이 훌쩍 높기 때문에 늘씬한 느낌을 준다.

돌을 쌓은 모습은 고려시대 탑이지만 백제 정립사지 오층석탑 양식이다. 마을 노인의 말에 따르면 1900년대 초까지 무위사 스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탑을 비단으로 감싸고 주위를 돌며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지금은 탑 뒤편으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서 스님 한 분이 탑을 돌보고 있다. 거기 돌담장엔 옛 절의 석재인 듯한 사각형의 큼직한 돌이 박혀 있다.


탑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아주 용맹하게 생긴 커다란 거북 위에 얹힌 비석이 있다. 월남사를 세운 진각국사 혜심을 기리는 비이다. 진각국사는 고려 고종 때 살았으며 보조 국사 지눌의 뒤를 이어 조계산 修禪社(지금의 송광사에 있던 수행결사)의 제2세 사주가 된 사람이다. 편마암 비석의 위쪽은 깨어져 나가고 풍상에 닳아 맨눈으로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

월출산 아래 월남리엔 월남사지가 있고 월하리엔 무위사가 있다. 무위사 천왕문을 들어서자 야트막한 돌계단이 있다. 나는 천천히 거닐듯 계단을 오른다. 조금씩 넓어진 시야 안으로 극락보전이 보이자 내가 사는 세상이 아늑해진다. 극락보전 앞 절마당에서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마당 한 켠엔 아름답고 고목이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다. 느티나무 팽나무가 지어내는 풍경은 無爲란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나무 아래 돌 몇 개 놓여 있어 답사 일행은 하나 둘 거기로 모여든다. 선생님의 해설이 시작된다.

“무위란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넘어선 무아와 무욕의 경지에서 성취되는 말이지요.”

극락보전 측면으로 돌아가 보니 기둥과 들보를 노출시킨 집은 조화로운 면분할로 단정한 멋을 은근히 풍기고 있다.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 영주 부석사의 조사당 같은 고려시대 맞배지붕의 엄숙함을 이어받은 듯하다.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종묘나 명륜당 대성전에서 보이는 단아함이 그대로 살아 있다. 나뭇결이 드러난 소슬 빗살문 또한 소박하면서 단정하다. 조선 초 국가 기강을 확립해가는 성종 초기의 건축이기 때문이다.

무위사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문화재 - 阿彌陀來迎圖, 先覺大師碑, 水月觀音圖 등은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극락보전, 절마당, 몇 그루의 나무만으로도 무위사는 모자랄 것이 없다. 생각도, 욕심도 버려질 것 같은 무위사에서 한 며칠 머무르고 싶다.

온통 일렁이는 보리물결이 답사의 감흥을 더해준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월출산 아래 두 절 월남사지와 무위사를 보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버스에 오른다. 



水晶 기념실

“陶瓷와 함께 지내온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소박하고 고아한 자기에서 느끼는 정취가 권태로운 일상생활로 해서 부질없이 흔들리기 쉬운 인간의 심사를 다잡아 주는데 더없는 길잡이였지요. 또 유형의 사기그릇을 통해 옛 선인의 무형의 마음을 짚을 수 있다는 것도 한결 기꺼운 일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조상들이 만든 예술품을 혼자만 가지고 즐긴다는 일이 죄송스럽기도 했지요. 변변치 못한 컬렉션이지만 워낙 도자가 귀중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기증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몇 십년동안 도자와 함께 지내던 마음을 이제부터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나는 과년한 딸을 定婚한 듯 기쁨에 넘쳐있습니다.”

타계하기 바로 전 수집한 도자기 362점을 도록까지 함께 만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면서 그가 한 말이다.

水晶 朴秉來(1903-1974)는 어려운 이들에게 널리 仁術을 편 의사였다. 일본인 교수로부터 ‘조선인이 조선의 접시를 몰라서야 말이 되느냐’는 핀잔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도자기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박물관과 골동가게에 드나들면서 도자기의 眞面目을 알게 되고 취미의 수준을 넘어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이 일을 즐겼는가는 筆架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지작거리던 일, 향아리를 머리맡에 놓고 자던 일 을 통해 알 수 있다. ‘眞假를 판단할 때 느끼는 흥분이나 실망감은 사람이 사는데 적절히 필요한 양념의 역할을 해 그만큼 사는 맛을 나게 해 준다’ 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것들은 늘 정성으로 닦고 매만져 언제나 윤이 났다. 온화한 성품의 그였지만 수집품에 먼지가 앉은 것을 보면 자제들을 꾸짖기도 했다. 빛에 따라 달라 보이는 도자기의 오묘한 매력에 빠져 밤잠을 설치는 일도 많았다. 그리 넉넉지 않은 생활에도 마음에 드는 유물이 있으면 장만하기 위해 애쓴 노력이 자칫 해외로 유출될 뻔한 많은 유물들을 우리 곁에 둔 것이다.

화려하고 다양한 유물들 속에서 유독 주인을 닮아 담백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수정기증유물은 박물관 2층에 전시되어 있다. 靑畵白磁, 純白



백자 옹 구름무늬 연적

磁, 粉靑沙器 등 조선시대 도자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특히 청화백자는 양도 많고 우수하다. 크기가 아담한 백자난초무늬호리병[보물 1058호]은 팔각의 면과 목이 긴 호리병의 조화가 특이하다. 18세기에 제작된 백자난초대 나무무늬병은 형태도 아름답거니와 한쪽에 그려진 대나무와 난을 치듯 그려진 패랭이꽃이 세련된 멋을 풍겨 보는 이로 하여금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 매화, 난초, 대나무, 배꽃, 구름, 새, 물고기가 그려진 병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山水, 연꽃, 물풀, 물고기문양의 접시들은 화려한 듯 품위가 있다. 주전자, 祭器, 필통들은 순백자의 멋을 제대로 나타낸다. 뚜껑에 잠금장치가 달린 주전자를 보면 권세를 둘러싼 규방의 서릿발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백자 난초무늬 호리병

수집품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다양한 연적이다. 그가 모은 연적은 감상의 재미도 있지만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가 된다. 雙鶴文을 남기고 全面에 銅畫안료를 입힌 자줏빛 사각 연적은 세련되면서 품위가 넘친다. 피부의 돌기는 귀엽게 양각되고 몸체는 동화안료를 입혀 살아있는 듯 활기 넘치는 두꺼비연적은 금방이라도 뛰어 오를 것 같다. 입이 큰 토끼연적을 보고 있으려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산 하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모양연적은 금광이라도 품고 있는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다. 암자모양 水口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먹을 갈아 쓴 글에는 산의 정기가 배어 있으리라. 백자용무늬 연적은 내부에 水囊을 만든 다음 넉넉한 간격을 두고 외부를 雲龍文으로 투각하여 덮었는데, 용꼬리와 비늘은 대담하게 틀어 생동감이 넘친다. 밖의 수구와 안의 수낭을 연결하는 水道는 직접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을 넣은 후 기울이면 관을 통해 수구로 물이 흘러나오니 제작기법이 참으로 놀랍다. 체면만 중히 여겼을 듯한 조선 선비들이 이들을 놓고 즐기기도 했다니 상상만으로도 유쾌해진다. 수정 역시 단정해 보이는 품성 어딘가 이들을 닮은 재치와 유머가 숨겨져 있었다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참으로 돈의 위력이 대단한 세태다. 그러기에 수정의 기증은 한층 빛나 보인다.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더 가치 있는 것이란 신념으로 조건 없이 기증한 이들이 존경스럽다. 분명 財力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명품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眞面目을 드러내는 법이다. 자주 보면 명품을 구분하는 안목도 그것을 기증한 그들의 인품도 배우게 되리라. 玆

박물관과 함께 익어가는 사람들

초여름 햇살이 거울못에 반사되어 일렁인다. 햇살만큼이나 따사로운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이십 여명의 사람들이 25년간을 박물관과 함께 했더니 놀랍기만 하다. ‘한우물 파기’란 말은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 1981년 제5기 특설 강좌로 시작한 분들이다. 다음해 열성적인 회원들이 뭉쳐서 전통문화학습회란 스터디그룹을 만들고, 몇 년 뒤 연구강좌가 신설되자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당시는 성인교육기관이 지금처럼 흔치 않아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했는데,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어요. 같이 응시했다가 떨어진 친구가 어디에 청탁을 했느냐고 묻기도 했더니깐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되고, 어느새 할머니가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엮어준 끈은 무엇일까? 처음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공부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동 관심사가 주는 결집력인

가보다. 넉넉한 웃음이 서로 닮아 보임은 같이한 오랜 시간 때문인가. 가족들의 적극적인 격려도 빼놓을 수 없는 지원세력이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공부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해 늘 기쁜 마음으로 박물관에 참여했다.

“생각해보니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네요. 최순우 관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관장님 모두와 추억이 쌓여있지요. 특히 스터디그룹 시절은 정말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주제 선정부터 강사 섭외, 답사까지 모두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 했지요. 강사 섭외 때 어떤 분은 정말 일언지하에 거절 하셔서 당황했던 기억이나요. 하지만 유명한 강사들이 스케줄을 조정해서 소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강의해주시니 감동 그 자체였어요. 사실 강의가 모두 재미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강사분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지요.” 박물관 사정으로 강의실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박물관들을 순례하며 강의를 들었다. 정기고적답사와 해외문화탐방도 부지런히 참가했다. 열악

한 환경과 강행군으로 힘들었던 인도 여행길에 잠시 본 테레사 수녀의 미소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렇듯 자주 만나다보니 가족 같은 친밀감이 생겨 어떤 친구나 친척보다 속내를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

박물관의 산 증인들은 용산 새 박물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돈다. “배치가 깔끔하고 세련되었어요. 과학적인 조명도 좋고 패널을 통한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유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박물관을 평가하는 안목도 가히 수준급이다. 요즘 수업이 끝나면 몇 개의 전시실을 정해 놓고 천천히 돌면서 새 박물관을 익히고 있다. 특히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정말 그들의 박물관 사랑은 끝이 없다.

약학을 전공했지만 박물관 공부가 훨씬 재미있었다는 최신자 회원은 다시 태어나면 역사학에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단다. 일 년을 마무리하는 종강 파티에서 10년간 개근상을 타 다른 회원에게 미안할 정도였더니, 그 열정에 새삼 머리가 수그러진다. 윤정희 회원은 박물관에 푹 빠진 사연을 재치 있는 글 솜씨로 다듬어 여러 번 신문과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막내라서 늘 배려해 주는데다가 배울 게 많은 분들이어서 모임이 기다려진다는 김혜련 회원,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젊어 보인다. 먼저 시작한 시누이의 권유로 박물관에 발을 들인 후 지금까지 강의와 해외답사까지 같이하며 가족간의 정을 쌓고 있다니 요즘 보기 드문 분들이다.




추억이란 다른 세계를 살았어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이 있나보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유난히 공통점도 많다. 표정이 하나같이 밝고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 차 보인다. 20년 전 특별 회원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등록했다. 올해 처음으로 목요일 강좌로 이동했는데,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고 동의했다니 놀랍기만 하다. “경복궁 안의 작은 찻집, 다원을 아세요? 돌담길을 따라 걷다가 다원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너무 좋았어요. 경복궁에서 공부할 때는 끝나고 인사동에 가서 전시회를 찾아 다녔죠.” 모두 호기심 많은 소녀 같다. 단지 공부가 좋아 모인 순수한 모임.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소박한 모임이기에 더욱 소중하다고. 세월을 같이 쌓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27리



북녘의 문화유산

- 평양에서 온 국보들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방송, 남북역사학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6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어서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90점 중에는 고려 태조 왕건상을 비롯한 북한의 국보 50점과 고려 금속활자 등 준국보 11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전시품도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상, 개성 현릉, 고려 10세기말~11세기초



선녀도, 김홍도, 18세기말~19세기초



1



2



3



4



5

- ① 독, 평양 표대유적, 신석기후기
- ② 베개 마구리 장식, 평양 진파리 7호 무덤, 고구려 4~5세기
- ③ 치미,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상경용천부 제9절터, 발해 10세기
- ④ 신계사 향완, 강원 고성 신계사, 1352년
- ⑤ 공양탑, 개성 불일사, 고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會長 | 徐載亮·吳志哲

理 事 | 李健茂·朴仙卿·朴亨植·申硯均
安聖基·李斗植·李仁洙·田永采
鄭明勳·池健吉·崔科南

監 事 | 金義炯·鄭建海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영구 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금관회원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은관회원

(주)종합전기 金鍾漢

» 개인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 삼성물산 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珷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지기 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제일화재 이사장
세종옛돌박물관장
삼표산업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용인대학교 부총장
열화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수원대학교 이사장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주)풍산주택 사장
LG카드 대표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洪錫肇 전 광주고검장
李興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惠蓮 대학강사
崔科南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健茂 국립중앙박물관장

(주)씨큐텍
柳憲辰
李殷子
정속희



후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유물기증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감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인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위창 오세창 상형고문
기원 유한지 예서
소정 변관식 백납8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 학술연구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박물관의 연구활동을 돕는다.

■ 사업지원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발굴조사 등을 지원한다.

사업, 사회교육, 자원봉사,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목·금요반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을 진행한다.

■ 연구강좌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하였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국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 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자원봉사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알립니다

한국박물관회의 명칭이 국립중앙박물관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겨울꽃을 돌아 열린 마당으로 오르는 길은
마지막 기운을 뿜어내는 태양으로 뜨겁다..
아~정말 떠나고 싶다.(리)

그리도 맑은 그녀
그리고 그리면
그리 될꺼야(水)

세월 참 빠르다.
아무리 말해도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는
세월은 귀머거리이다.
그 마음 못헤아리는 나도 마찬가지로인가?(河)

봄날은 간다.
아니, 벌써 가버렸다.
팬시리 더위를 타하며 하늘을 본다.
시원한 소나기 한 차례 내려주지 않으려나...(愛)

발끝을 돌며 바람이 온다.
확, 뜨겁다.
그 바람 타고 찾아볼까... 놓친 꿈.(정)

사소한 일상의 것들이
빛나 보이는 순간이
바로 행복한 때입니다.(진)

그저...
제 몫 다하지 못해
미안하기만 할 뿐.(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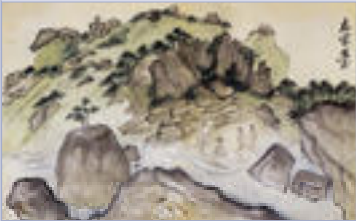
박물관 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제14호

발행일 | 2006년 6월 20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미연·조애경·진수옥·하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화첩 『송도기행첩』 중 일부이다.
한 여름 濯足하는 士人들의 기행장면을 운치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둥글고 각진 바위와 흐르는 듯한 물줄기가 시원스럽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사회교육, 자원봉사,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68-6, Yongsan-dong 6-ga,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